

#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비교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와 4년제 간호학과 중심으로—

곽혜원\*, 황성우\*\*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Hye-Weon Kwak\*, Sung-Woo Hwang\*\*

Dept. of Nursing, Daekyeu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를 조사하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4년제 간호대학생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개 전문대학과 3개의 4년제 간호대학 재학생 372명이며, 2015년 9월 7일~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 = -.509, p < .001$ ), 대인관계조화( $\beta = .410, p < .001$ ), 학업성적( $\beta = .119, p = .022$ )으로 6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4년제 간호대학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 = -.438, p < .001$ ), 간호학 지원동기( $\beta = -.128, p = .011$ ), 대인관계조화( $\beta = .403, p < .001$ )이었으며 50%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대인관계가 학과적응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조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Abstract** The study aim was to identif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and to compare the results to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 surveys between September 7, 2015 and November 30, 2015. A total of 372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harmon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ursing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department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in four-year technical colleges. For nursing students in four-year universit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ursing major satisfaction, and the motive behind applying for a nursing major were critical factors affecting department satisfa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bility to create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ust be increased in order to improve department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Received 23 November 2016, Revised 17 Jan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Sung-Woo Hwa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Email: sarajin9@doowo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핵심 목표는 이론교육과 기술의 통합교육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질적인 간호제공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이러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위해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임상현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상당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정적으로 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3],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과에 비해 높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교우관계, 시험,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가고시와 임상실습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 5]. 이러한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곧 전공학과에 대한 적응 및 만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6]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응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대인관계이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효과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은 간호현장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므로[7] 간호대학생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학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6]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파악하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

대인관계 이외에도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8]. 자기 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학습과제에 대한 도전으로 과제수행을 증진시킨다[9].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10]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해결책

을 모색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 만족, 학과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자기 효능감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측정함에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한편,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교육과정의 4년제 일원화가 실현되고 있어 201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전문대학 간호과의 경우 4년제 간호대학에 비해 1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년제 간호대학과 비슷한 전공학점을 유지하고 있어 간호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왔으며[13], 교양교육과정을 꼭 필요한 필수 교과만으로 최소화하여, 전공교육과정을 상대적으로 중요시 하였다[14].

그러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등장으로 인해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양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15]. 기존 3년제 간호교육과정의 경우, 2학년부턴 임상실습을 나가야 하므로 전공교육 이외에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증진 등의 교양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그러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증가한 간호과는 전공교육의 내실화 뿐만 아니라 전공 외 교양교육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최근 3년 동안 이 과정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등이 개선되었는지를 기존 4년제 간호대학생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재학생들의 학과만족도 및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기존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차이점과 유사점은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재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둘째,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를 파악한다.

셋째,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학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및 호남지역의 수업연한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개 전문대학 간호과와 수도권 및 충남지역 4년제 간호대학 3개 대학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대학의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3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 표본크기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5$ , 효과크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로 .15, 검정력(power)는 95%, 예측변수를 3개 정도로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1명이 필요하나 중도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각각 150명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능력과 대인관계조화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에서는 Schlein, Guerney와 Stover[16]의 대인관계변화 척도를 Moon[17]이 번안한 대인관계변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최소 25점에서 최대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도구 개발당시 .86이었으며, 번안된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나. 대인관계조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는 Kim과 Park[18]이 개발한 28문항의 대인관계조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최소 28점에서 최대 1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조화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과 Jacobs[19]이 대학생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Hong[20]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23점~115점이며, 하위요인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17~85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6~30점이다. Hong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2.3.3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 측정도구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21]를 Kim과 Ha[22]가 수정, 보완한 총 27문항의 학과만족도 척도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만족 문항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호대학생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7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5문항, 전공하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18~90점이며 하위요인별로 일반만족 7~35점, 인식만족 5~25점, 교과만족 3~15점, 관계만족 3~15점이다. Kim과 Ha[22]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5일간 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의 간호학과 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토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384부였으며 이중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372부를 자료 분석하였다.

###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대상자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설문조사 불참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가 아닌 제 3자가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 2.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9.0 프로그램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고,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하였다.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세 이하가 91명(58.7%), 21세가 31명(20.0%), 22세가 9명(5.8%), 23세가 5명(3.2%), 24세 이상이 19명(12.3%)이었다. 성별은 남자 20명(12.9%), 여자 135명(87.1%)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96명(61.9%), 2학년이 59명(38.1%)이었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69명(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만족'은 40명(25.8%), '보통'이 37명(23.9%) 순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내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81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의 권유' 36명(23.2%), '취업률이 높아서' 29명(18.7%) 순이었다. 대인관계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65명(41.9%)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 성적은 3.5~3.9가 59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세 이하가 176명(81.1%), 21세가 23명(10.6%), 22세가 11명(5.1%), 23세가 4명(1.8%), 24세 이상이 3명(1.4%)이었다. 성별은 남자 22명(10.1%), 여자 195명(89.9%)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103명(47.5%), 2학년이 114명(52.5%)이었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02명(4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만족'은 58명(26.7%), '보통'이 49명(22.6%) 순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내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127명(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의 권유' 46명(21.2%), '취업률이 높아서' 23명(10.7%) 순이었다. 대인관계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8명

(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 성적은 3.0~3.4가 97명 (44.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372)

| Variable                                | Categories         | FTCN* (n=155)   | FUN† (n=217)    |
|---|--------------------|-----------------|-----------------|
|   |                    | n(%) or Mean±SD | n(%) or Mean±SD |
| Age(year)                               | ≤20                | 91(58.7)        | 176(81.1)       |
|   | 21                 | 31(20.0)        | 23(10.6)        |
|   | 22                 | 9( 5.8)         | 11( 5.1)        |
|   | 23                 | 5( 3.2)         | 4( 1.8)         |
|   | ≥24                | 19(12.3)        | 3( 1.4)         |
|   |                    | 21.05±3.72      | 19.73±1.18      |
| Gender                                  | Female             | 135(87.1)       | 195(89.9)       |
|   | Male               | 20(12.9)        | 22(10.1)        |
| Grade                                   | 1                  | 96(61.9)        | 103(47.5)       |
|   | 2                  | 59(38.1)        | 114(52.5)       |
| Satisfaction with major                 | Very satisfied     | 40(25.8)        | 58(26.7)        |
|   | Satisfied          | 69(44.5)        | 102(47.0)       |
|   | Moderate           | 37(23.9)        | 49(22.6)        |
|   | Dissatisfied       | 6( 3.9)         | 8( 3.7)         |
|   | Very unsatisfied   | 3( 1.9)         |                 |
| Application motivation                  | Wanted             | 81(52.3)        | 127(58.5)       |
|   | Recommendation     | 36(23.2)        | 46(21.2)        |
|   | Employment rate    | 29(18.7)        | 23(10.6)        |
|   | Achievement        | 1( 0.6)         | 7( 3.2)         |
|   | Professions        | 8( 5.2)         | 14( 6.5)        |
| Importa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 Not very important | 15( 9.7)        | 35(16.1)        |
|   | Not important      | 2( 1.3)         | 1( 0.5)         |
|   | Moderate           | 13( 8.4)        | 14( 6.5)        |
|   | Important          | 60(38.7)        | 79(36.4)        |
|   | Very important     | 65(41.9)        | 88(40.6)        |
| Academic achievement(grade)             | <3.0               | 18(11.6)        | 31(14.3)        |
|   | 3.0-3.4            | 53(34.2)        | 97(44.7)        |
|   | 3.5-3.9            | 59(38.1)        | 67(30.9)        |
|   | 4.0-4.5            | 25(16.1)        | 22(10.1)        |

\*FTCN: Four-year technical college nursing;

†FUN: Four-year university nursing

### 3.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을 살펴보면, 4년제 간호대학생이 5점 만점에 3.68±0.46점으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3.56±0.49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t=2.36, p=.018), 대인관계조화는 4년제 간호대학생이 5점 만점에 3.89±0.44점으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3.78±0.49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9, p=.017).

자기효능감은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이 5점 만점에 3.22±0.45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의 3.29±0.48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부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모두 4년제 간호대학생이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과만족도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이 5점 만점에 3.88±0.62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의 3.97±0.58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부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모두 4년제 간호대학생이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Table 2> Comparison between Four-year Technical College Nursing and Four-year University Nurs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N=372)

| Variables                  |                                    | FTCN* (n=155) | FUN† (n=217) | t     | p    |
|----------------------------|------------------------------------|---------------|--------------|-------|------|
|                            |                                    | Mean±SD       | Mean±SD      |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3.56±0.49     | 3.68±0.46    | 2.36  | .018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 3.78±0.49     | 3.89±0.44    | 2.39  | .017 |
| Self-efficacy              |                                    | 3.22±0.45     | 3.29±0.48    | 1.37  | .170 |
| General self-efficacy      |                                    | 3.23±0.49     | 3.28±0.51    | 0.96  | .335 |
| Social self-efficacy       |                                    | 3.19±0.55     | 3.31±0.62    | 1.84  | .065 |
| Department satisfaction    |                                    | 3.88±0.62     | 3.97±0.58    | 1.30  | .193 |
| General satisfaction       |                                    | 3.91±0.71     | 4.01±0.68    | 1.46  | .145 |
| Recognition satisfaction   |                                    | 4.20±0.68     | 4.33±0.67    | 1.82  | .070 |
| Subject satisfaction       |                                    | 3.64±0.81     | 3.70±0.75    | 0.74  | .455 |
| Relationship satisfaction  |                                    | 3.55±0.83     | 3.52±0.81    | -0.36 | .715 |

\*FTCN: Four-year technical college nursing;

†FUN: Four-year university nursing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 전공만족도 (F=32.42, p<.001), 간호학 지원동기(F=7.70, p<.001), 대인관계 중요성(F=3.29, p=.013), 학업성적(F=3.77, p=.01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년제 간호

대학생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F=39.13, p<.001$ ), 간호학 지원동기( $F=5.36, p<.001$ ), 대인관계 중요성( $F=3.44, p=.009$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72)

| Character                               | Variables                     | Department satisfaction |                 |
|---|-------------------------------|-------------------------|-----------------|
|   |                               | FTCN*<br>(n=155)        | FUN*<br>(n=217) |
|   |                               | Mean±SD                 | Mean±SD         |
| Age                                     | ≤20                           | 3.88±0.62               | 3.98±0.58       |
|   | 21                            | 3.93±0.63               | 3.92±0.65       |
|   | 22                            | 3.98±0.66               | 3.77±0.47       |
|   | 23                            | 3.40±0.69               | 4.13±0.51       |
|   | ≥24                           | 3.89±0.59               | 4.12±0.93       |
|   | F(p)                          | 0.86(.490)              | 0.51(.727)      |
| Gender                                  | Female                        | 3.90±0.63               | 3.94±0.59       |
|   | Male                          | 3.75±0.57               | 4.16±0.43       |
|   | t(p)                          | 1.01(.312)              | -1.65(.099)     |
| Grade                                   | 1                             | 3.93±0.58               | 3.99±0.60       |
|   | 2                             | 3.81±0.68               | 3.95±0.57       |
|   | t(p)                          | 1.06(.288)              | 0.47(.633)      |
| Satisfaction with major                 | Very satisfied <sup>a</sup>   | 4.32±0.53               | 4.36±0.48       |
|   | Satisfied <sup>b</sup>        | 4.02±0.46               | 4.02±0.44       |
|   | Moderate <sup>c</sup>         | 3.39±0.37               | 3.55±0.51       |
|   | Dissatisfied <sup>d</sup>     | 3.22±0.51               | 2.95±0.55       |
|   | Very unsatisfied <sup>e</sup> | 2.29±0.51               |                 |
|   | F(p)                          | 32.42(<.001)            | 39.13(<.001)    |
|   |                               | a>b>c                   | a>b>c>d         |
| Application motivation                  | Wanted <sup>a</sup>           | 4.13±0.57               | 4.10±0.56       |
|   | Recommendation <sup>b</sup>   | 3.59±0.55               | 3.84±0.54       |
|   | Employment rate <sup>c</sup>  | 3.62±0.64               | 3.86±0.51       |
|   | Achievement <sup>d</sup>      | 3.83±0.00               | 3.60±0.56       |
|   | Professions <sup>e</sup>      | 3.68±0.43               | 3.54±0.69       |
|   | F(p)                          | 7.70(<.001)             | 5.36(<.001)     |
|   |                               | a>e                     |                 |
| Importa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 Very important                | 4.04±0.54               | 4.05±0.62       |
|   | Important                     | 3.77±0.67               | 3.86±0.49       |
|   | Moderate                      | 3.55±0.59               | 3.59±0.57       |
|   | Not important                 | 3.27±0.47               | 3.83±0.00       |
|   | Not very important            | 4.02±0.62               | 4.14±0.59       |
|   | F(p)                          | 3.29(.013)              | 3.44(.009)      |
| Academic achievement (grade)            | <3.0                          | 3.65±0.55               | 3.84±0.55       |
|   | 3.0~3.4                       | 3.73±0.68               | 3.91±0.54       |
|   | 3.5~4.0                       | 4.04±0.56               | 4.13±0.57       |
|   | 4.1~4.5                       | 4.02±0.58               | 3.88±0.74       |
|   | F(p)                          | 3.77(.012)              | 2.64(.050)      |

\*FTCN: Four-year technical college nursing;

\*FUN: Four-year university nursing

### 3.4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대인관계능력( $r=.54, p<.001$ )과 대인관계조화( $r=.59, p<.001$ ), 자기효능감( $r=.3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대인관계능력( $r=.38, p<.001$ )과 대인관계조화( $r=.53, p<.001$ ), 자기효능감( $r=.3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N=372)

| Character | Variable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Self-efficacy |
|-----------|------------------------------------|------------------------------------|------------------------------------|---------------|
| FTC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67(<.001)                         |                                    |               |
|           | Self-efficacy                      | .37(<.001)                         | .41(<.001)                         |               |
|           | Department satisfaction            | .59(<.001)                         | .54(<.001)                         | .31 (<.001)   |
| FU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67(<.001)                         |                                    |               |
|           | Self-efficacy                      | .59(<.001)                         | .54(<.001)                         |               |
|           | Department satisfaction            | .53(<.001)                         | .38(<.001)                         | .31 (<.001)   |

\*FTCN: Four-year technical college nursing;

\*FUN: Four-year university nursing

### 3.5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과 만족도에 대한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독립변수 투입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학 전공만족도, 간호학 지원동기, 대인관계 중요성, 학업성적을 포함시켰

다.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509, p<.001$ ), 대인관계조화( $\beta=.410, p<.001$ ), 학업성적( $\beta=.119, p=.022$ )이었으며 60%의 설명력을 보였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조화,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독립변수 투입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학 전공만족도, 간호학 지원동기, 대인관계 중요성을 포함시켰다.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438, p<.001$ ), 간호학 지원동기( $\beta=-.128, p=.011$ ), 대인관계조화( $\beta=.403, p<.001$ )이었으며 50%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5>.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N=372)

| Character | Variable                           | B            | SE   | $\beta$ | t     | p     |
|-----------|------------------------------------|--------------|------|---------|-------|-------|
| FTCN*     | Satisfaction with major            | -.353        | .038 | -.509   | -9.36 | <.001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 .518         | .069 | .410    | 7.55  | <.001 |
|           | Academic achievement               | .083         | .036 | .119    | 2.30  | .022  |
|           | R <sup>2</sup>                     | .610         |      |         |       |       |
|           | Adjusted R <sup>2</sup>            | .602         |      |         |       |       |
|           | F(p)                               | 78.74(<.001) |      |         |       |       |
| FUN†      | Satisfaction with major            | -.320        | .038 | -.438   | -8.43 | <.001 |
|           | Application motivation             | -.064        | .025 | -.128   | -2.56 | .011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 .533         | .066 | .403    | 8.07  | <.001 |
|           | R <sup>2</sup>                     | .513         |      |         |       |       |
|           | Adjusted R <sup>2</sup>            | .506         |      |         |       |       |
|           | F(p)                               | 74.66(<.001) |      |         |       |       |

\*FTCN: Four-year technical college nursing;

†FUN: Four-year university nursing

#### 4. 논의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4년제 간호대학생과 비교 분석하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점수는 4년제 간호대학생

이 5점 만점에 3.68점으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3.56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1]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 3.68점, 3년제 간호대학생의 3.53점과 유사한 결과였으며,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한 Hwang[23]의 연구에서의 87.22점(5점 평균으로 환산 시 3.49) 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점수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점수[11, 23]보다는 높았으나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4년제 간호대학생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과정 개편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 점수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이 5점 만점에 3.22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의 3.29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1]에서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24]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3년제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두 그룹 모두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3.78점[25]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은 자기관련 인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6] 학제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이 되고[27, 2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29]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기효능감 증진 훈련이 필요하다.

학과만족도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이 5점 만점에 3.88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의 3.97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0]의 3.82점과 유사하였다. 하부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모두 4년제 간호대학생이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4년제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4]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

의 학과만족도가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 31]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4년제 간호대학생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에도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이 기존 4년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보다 낮은 이유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학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표집단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과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간호학 지원동기, 대인관계 중요성,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년제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만족도, 간호학 지원동기, 대인관계 중요성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 학제, 간호학 지원동기,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4, 32]와 일부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간호학을 지원한 경우 학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의에 의한 전공 선택인 경우 임상실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므로[33] 학생선발 시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경우인지와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학과만족도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 모두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24]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이 증가되어 바른생활을 하고 대학생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인관계조화와 대인관계능력은 학과만족도와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29, 34] 대인관계는 대학생할 만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10],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하여[11] 전반적인 학과만족도가 상승되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간호학 전공만족도, 대인관계조화, 학업성적이었으며 6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4년제 간호대학생은 전공만족도, 간호학 지원동기, 대인관계조화였으며 50%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조화가 학과만족도의 주요 예측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하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학습법을 개발하는 등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타인과의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의 표집단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4년제 간호대학생과 비교 분석하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와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성적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 간호학 전공만족도, 간호학 지원동기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조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선발 시 간호학 지원동기를 고려한다면,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향후 간호사로서의 실무 능력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조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인관계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보고 학과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 H. Waldner, & J. K. Olson,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14, No. 1, pp. 1-14, 2007.  
<https://doi.org/10.2202/1548-923x.1317>
- [2] M. Y.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University, 2005.
- [3] Y. H. Kim., M. S. Yang, & H. R. Park.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291-301,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291>
- [4] H. J. Park, &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14-23, 2010.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5]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59-268,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59>
- [6] M. H. Jung, &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170-177, 2006.
- [7] C. T. Beck,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caring for dying patient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6, No. 9, pp. 408-415, 1997.
- [8] A. Bandura,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9]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3, pp. 380-386, 2008.
- [10] H. I. Lee, "A study of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in University College*, Vol. 19, No. 1, pp. 27-40, 2010.
- [11] H. Y. Koo, &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311-321,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01.311>
- [12] Christensson, A, Vaez, M, Dickman, P. W., & Rumeson, B "Self-reported depression in first-year nursing students in relation to socio-demographic and educational factor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in Swede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6, No. 4, pp. 299-310, 2011.
- [13] K. O. Lee., Y. L. Han, & H.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4-year college and 3-year college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7, No. 1, pp. 361-383, 1996.
- [14] S. Y. Kim, S. E. Joung, & C. I. Hwang, "A comparison on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4-year and 3-year nursing schoo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1, pp. 101-109, 2011.
- [15] E. S. Chun, & R. M. Lee, "Development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Vol. 11, No. 1, pp. 21-37, 2010.
- [16] Schlein, S., Guerney, B., &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h.D. dissertation,

- Pennsylvania University, 1971.
- [17] S. M. Moon, "A study 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The Journal of Gyeongsang University, Vol. 19, No. 1, pp. 195-204, 1980.
- [18] S. H. Kim, & G. H. Park,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harmon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2, pp. 375-389, 2008.
- [19]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Vol. 51, pp. 663-671, 1982.
- [20] H. Y. Hong,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University, 1995.
- [21]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No. 4, pp. 494-498, 1979.  
<https://doi.org/10.1037/0022-0663.71.4.494>
- [22] K H Kim &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23] S. S. Hwang, "A study on the effect of MBTI(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 basic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ience major students and their cohes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 61-73, 2004.
- [24]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3.
- [25] E. K. Ryu,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atholic University, Vol. 37, No. 1, pp. 97-114, 2012.
- [26] Emmons, R A,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1, pp. 11-17, 1987.  
<https://doi.org/10.1037//0022-3514.52.1.11>
- [27] H. S. Lee, "Relations among self-efficacy,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 [28] S. Y. Lee, &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2016.
- [29] Y. S. Lee, S. H. Park, &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30] H. J. Park, &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17>
- [31] K. N. Kim, "Effects of DidimDoL learning on ego-resiliency,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9, No. 2, pp. 193-202, 2015.
- [32] M. H. Nam, & H. Ok.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263-273,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1.263>
- [33] S. J. Lee,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0, No. 2, pp. 41-52, 1980.
- [34] D. S. Park,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415-423, 201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415>

곽 혜 원(Kwak, Hye Weon)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대인관계, 신체활동
- E-Mail : thinkss1008@naver.com

황 성 우(Hwang, Sung Woo)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인력정책, 치매케어
- E-Mail : sarajin9@doowon.ac.kr